

월요광장

혁신도시 유감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 이전 정책에 따라 필자는 작년 4월 근무지인 나주혁신도시로 이주하였다. 낯선 도시에 적응하느라 노력 중이지만 아직도 이방인 신세다. 이곳 생활의 불편함은 교통과 문화적 인프라의 열악함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올 3월 KTX 개통으로 교통여건 해소는 기대가 되지만 문화적 인프라의 열악함은 오랫동안 감수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청정자연과 다채로운 남도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큰 선물이 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천년 고도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나주배나 나주곰탕만으로 정체성을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도시의 표층구조만을 볼 수밖에 없는 과묵한 탓인지 몰라도 개발 논리 속에 남도의 문화적 기품이 급격히 희석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광주와 목포로 행정중심이 이동되어 낙후된 나주를 살리고자 계획된 혁신도시가 과연 계획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인가? 한전 등 거대 기업들의 이주는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지역문화의 원형을 장신하는 일은 과연 어떤가? 급조된 혁신도시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나주 원도심마저 개발논리에 밀려 그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결국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지역을 살리려는 당초 목표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남도문화의 원천으로서 콘텐트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주는 고래로 영산강을 끼고 성장한 강력한 해양세력의 중심도시로서 삼한의 마한으

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도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반남고분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 팔관회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무형문화재, 실학자 홍대용과도 연관이 있는 유서깊은 도시다. 여타 남도 도시들의 가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이러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철학을 담아냈더라면 현재와 같은 도시의 물개성화를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과도하게 물성만을 강조한 건물들이 치솟고 있던 것을 막고, 친환경과 무관한 인공호수를 조성한다거나 밀정만 산을 깎아 전망대를 구축하는 등 어느 신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살풍경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과도한 개발논리로 인한 도시 정체성의 상실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공동화 가능성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전통을 보존해오던 기존의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면서 신도시나 원도심 양자 모두 지역의 정체성과 무관한 과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 논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노력이 필요

하다. 도시를 이상적으로 살려내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문화가 경제의 핵심이란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있는 요즘을 지나체마다 ‘창조도시’나 ‘도시재생’의 개념이 유행처럼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주의 경우도 도시재생 단원을 구현코자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물량과 자본의 힘으로 구축되는 인위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을 녹여냄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이 창조도시와 도시재생 정책과제의 중핵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들고 창의적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도시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의 삶을 녹여내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문화자원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은 자칫 거대한 소비도시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나주와 혁신도시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법조칼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려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요즘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참 인기몰이 중입니다. 원래는 신문에 영화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스포일러라고 해서 웨방꾼이 되기 십상이지만 개봉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천만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으니 다행히도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 온 자신들보다는 가족들 특히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에 대한 사실 특별한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흔한 소재의 영화에 참 말들이 많습다. 보수진영에서는 주인공이 지나온 우리

의 현대사가 지금의 자녀들에게 따끔한 충고가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만들어 온 나라니까 더 이상 이라크 저러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 보니까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강조하는 ‘국제시장’의 등장은 반동으로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평론가는 졸지에 좌파 논객이 되어 버렸고 이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출신지역을 문제 삼아 지역감정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영화가 재미있어야 하거나 감동적이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는 행위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듯이 영화를 통하여 느끼는 재미와 감동 역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 내가 보수이거나 진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왜 ‘국가’를 떠올려야 하는지 모

르겠습니다. 영화는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면서 자식을 잘 되게 하고자 고생했던 우리 부모세대에 대해 말해주고자 한다는데 왜 지금도 ‘보수’와 ‘진보’를 운운하면서 그 시절로부터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사소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제가 일하는 법정에서 가장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저마다의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불안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고 믿는 진실을 대변하여 주는 변호사는 때론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다른 의뢰인의 이야기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짓처럼 들렸던 피고인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생겼습니

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변호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좋지 않은 결과에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오히려 마음이 가장 불편할 피고인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느끼는 고마움은 진심이었고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만의 진실을 제가 믿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타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말을 한번 들어주고 싶다는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변호사로서 최선의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상대가 있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해보입니다.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배려, 재판의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가끔은 저를 힘들게(?) 하지만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저의 의뢰인에 대한 배려가 그것입니다.

社說

조합장 선거, 조합원이 돈 유혹 뿌리쳐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출마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일부 지역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다 적발되는 등 불법·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데 광주에서는 전체 17곳, 전남은 183곳에서 실시된다. 광주·전남지역 입후보자는 5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무려 47만여 명으로 ‘작은 지방선거’ 수준이다. 광주와 전남도선관위 등은 이달 초 출마를 위해 공무원이나 조합 상임이사 등 10여 명이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입후보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광양A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3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건

넛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또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건된 2269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3.6%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조합장 선거를 조합 스스로 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것도 이런 부정이 척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돈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후보가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선후배이니가 관참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고 당선만 당하게 된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만든 회사의 CEO(전문경영인)다. 더욱이 한국의 농수축산업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돈을 뿌리면서 정치적 영달만 좇는 사람이 아닌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직원들이 학교서 학생 성추행하다니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교내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니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모 초교 시설관리 직원인 정모(56)씨와 행정 관리 담당인 오모(54)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학교 2층에 있는 비품 보관 사무실에서 A(8)군의 팔과 다리를 잡고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며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고 한다. 이들은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고, 이 가운데 1명은 A군이 울먹이자 사무실에 보관된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가슴이 드릴에 찔리면서 상처까지 입었다. 피해 학생은 충격을 여파로 병원에 다니며 심리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키웠다. 학교 교직원들이 정상 근무하며 A군과 함께 버섯이 학교에 다닌 것이다. 아이와 가족들은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경찰과 광주시교육청의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수사를 장기간 끌었고, 시교육청도 뒤늦게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니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아픔을 안긴 셈이다. 경찰은 이들 교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혀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 시교육청 역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벌여 해당 교직원과 학교 측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황폐한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미래의 이야기다. 과학자들이 인류가 살아갈 만한 곳으로 지목된 행성들을 차례로 방문해가며 겪는 에피소드와 고난 극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우주의 생경한 모습 그리고 중력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시간이 생생하게 묘사돼 인기를 끌었다. 현실에서도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가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 제작된 최초의 위성은 프랑스의 코롯(Corot) 위성이다. 지난 2006년 12월 코롯위성을 발사할 당시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10~40개의 지구형 행성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발견된 행성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도 지구의 몇 배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 2개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다는데, 그 결과가 코롯위성 발사 당시의 예측과 유사해 이채롭다. 이번엔

발견된 행성들은 표면이 딱딱하고 바위가 많은데다, 너무 춥지도 뜨겁지도 않은 환경을 갖췄다고 한다. 한마디로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은 대부분의 다른 액체와는 달리 다양한 화학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범 우주적 용매(Universal Solvent)’다. 간단한 원소로부터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주에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매개체이기도 하다. 인터스텔라에 ‘물 의 행성’이 등장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현실에서 ‘제2의 지구’ 후보를 발견했다니 반갑긴 하지만, 그곳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형’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우주생화학자인 클리포트 피코르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겐 생인 감각류와 철량 거리는 추수를 지닌 해파리 등을 보면 신은 유머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처럼 어이없는 행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우주와 소통하기 위한 기존의 문을 넘어선 ‘범 우주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든 생각이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인터스텔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기회라는 이름의 착취 ‘열정페이’



김성중 수필가

성룡이 주연을 맡은 영화 ‘취권’은 주인공이 취권 고수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먼저 취권고수를 찾아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는다. 처음에는 각종 허드렛일들을 도맡아 한다. 차츰 주인공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된 사부는 본격적인 초시 훈련과 대련을 통해 무공의 완성을 지도한다. 결국 주인공은 취권을 터득하고 자신의 원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는데, 아마 주인공은 자신 깨달은 무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제자를 가르쳐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갔을 것이다. 주인공은 요즘 표현으로 ‘열정페이’를 받으며 수련했다. 기반이 없는 젊은이에

게 기회를 주는 대신 금전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상호계약을 열정페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가르쳐 줄테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권 속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중요한 맹약이 존재했다. 바로 상호 신뢰와 보장된 미래다. 무언에 대한 상호 신뢰이고 보장된 미래인가? 스승은 제자의 충심을 믿었고,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믿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믿고 따르면 반드시 취권의 고수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미래가 성룡에게 있었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두려움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열정페이’에는 과연 그와 같은 맹약이 존재할까.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피상적인 취지는 좋다. 배우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이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젊은이의 도전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21세

기의 열정페이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선택이 아닌 강요라는 것이다.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회사는 대개 그 분야에서 명망과 권위가 있거나 신규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기업이다. 그런 곳에서 구인공고를 내며 애당초 ‘열정페이’를 공시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배울지 말지는 배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데, 가르쳐 준답시고 무보수 노동을 먼저 요구한다니 말이다. 먼저 노동을 제안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니 보수는 바라지 말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둘째는 교육이 아닌 노동을 시킨다는 것이다. 미래의 인재육성을 취지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즉,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되 반드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현재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일자리 의 업무 내용을 보면 직원 수준의 노동을 요구하거나, 잠심부름과 단순반복업무가 주를 이룬다. 내공을 쌓기 위한 자리여야 하는 인턴직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

이다.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도전한 젊은이들이 하는 경험이라고는 기성세대의 교활함 뿐이지 않을까. 셋째는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간 주고 받는 이익이 상시적인 선에서 균등해야 한다.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는 계약은 일종의 사기다. 열정페이로 맺어지는 계약의 경우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명확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허나, 열정페이를 받는 젊은이들에게 보장된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식구로 받아들여 꿈을 이뤄주려 하지 하는 의지도 없다. 그저 그들의 열정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 없는 열정페이는 착취일 뿐이다. 상호 신뢰와 미래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쌍방간의 맹약이 존재하고, 반드시 지켜질 때만이 올바른 의미의 열정페이로 할 것이다. 아무런 맹약이 없는 열정페이. 그것의 본질은 기회를 미끼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